

「假明人頭上에 一棒」과 儒敎의 眞髓 (三)

저자 미상

舊家屋을 打破하고 新家屋을 建設하라 하면, 먼저 그 舊家屋의 欠點과 長處를 遺憾 업시 解剖 省察한 後에 圓滿한 新家屋의 設計를 作定하여야 할지니, 이와 갓치 우리 朝鮮民族은 現今 世界 改造의 維新時代를 當하여 一大 民族運動을 起한 바 正히 死亡의 그늘로부터 生命의 道에 入하얏스니, 이는 本報 創刊辭에 임의 論한 바 復活이오 舊家屋의 打破이며, 將次 渾身の 勇力을 다하며 二千萬 民衆의 心志를 肅하여 遠大한 自由 發達의 道程을 行하고자 하니, 이는 本論文 序頭에 論한 바 前途의 險惡이오 新家屋의 建設이라. 吾人의 意 | 엇지 반드시 政治的으로만 論함이리오. 또한 社會的 意義를 包含하여 舊生活을 脫하고 新生活을 作함을 意味함이니, 然則 我 朝鮮民族은 그 前程에 對한 設計와 理想을 各人이 明白히 心中에 意識하는 同時에 在來 立地의 欠點과 長處를 解剖 省察함이 必히 徒勞가 아니라. 吾人은 茲에 在來 朝鮮의 國敎로 人心을 陶冶하며 文物 制度의 根源을 作하든 儒敎의 眞髓를 論하여써 吾民族의 前道와 關係를 밝히고자 하노니, 더욱 本報에 揭載된 『假明人頭上에 一棒』으로 儒林의 奮起를 促한 此時를 當하여, 그 意味深長함을 覺하며 그 時宜를 得함이라 思하노라.

大概 宗教에는 如何한 宗教를 勿論하고 體와 用의 分이 잇스니, 이를 人身에 比言하면 體는 生命이오 用은 四肢라. 그 體는 오즉 生命으로 變함이 無하되 用은 四肢와 如히 生長 發達을 遂하나니, 四肢의 長成 發達을 隨하여 衣服의 變遷이 有함과 如히 人文의 發達과 時代의 推移를 從하여 宗教의 用的 方面의 諸般 文物 制度는 또한 變遷과 損益을 不免하는도다. 이를 時代와 社會에 分하여 論하건대 (一) 昔에 子張이 問호대 十世를 可히 知할 것이닛가? 한대 孔夫子 같오대 『殷因於夏禮하니 所損益을 可知也며, 周因於殷禮하니 所損益을 可知也 | 니, 其或繼周者면 雖百世라도 可知也 | 니라.』 하섯도다. 이는 勿論 政治 制度를 指함이어니와, 政治 制度는 宗教에 本함이니 『堯舜萬相授之心法』과 『商湯周武相傳之心法』이 엇지 그 二리오. 그 本於道하며 本於心함은 惟一이로되 其所損益은 不一殊異하니, 然則 其所因은 何오? 可 變치

아니하는 宗教의 體를 損함이며, 其所損益은 何오? 苟 時宜措之로 變遷 推移하는 宗教의 用을 指함이니, 此兩段의 區別이 無히오? 즉 그 體用을 舉하여 一時代나 一社會의 習慣 制度와 思想 傳說에 拘抵固定하면, 그는 임의 枯死한 宗教라. 萬世를 通하여 活動하는 生命을 失한 者며, (二) 宗教의 用이 一社會 中에 時代를 隨하여 推移할 뿐 아니라, 또한 社會와 民族의 殊異特性에 依하여 差異가 自有하니, 大概 人性은 古今을 通하며 東西에 亘하여 異함이 無하나, 그러나 各其 生活樣式은 同一하지 아니함이 맞치 各人의 自體組織은 同然하나 그 形像은 不一함과 갓흔지라. 故로 人性에 根本한 宗教의 體는 그 覺의 深淺과 達의 高下의 區別은 有할지언정 萬邦의 諸般宗教를 通하여 同一하니, 이는 不變普遍의 理를 作함이로되 오즉 그 用은 生活樣式의 殊異를 從하여 各別하니, 이는 風土 習慣으로 出來한 民族과 社會의 特性이 宗教形式에 影響함이로다.

然則 吾人은 宗教를 論함에 當하여 반드시 그 骨子 眞髓와 이에 附隨하는 社會的 時代的 形式 着衣를 明白히 區別하여야 할지니, 此를 期할진대 吾人은 반드시 自由와 嚴正과 明明한 批判的 精神을 要하는도다.

儒敎의 眞髓는 무엇인고? 噫라! 그 道大하고 博하니 엇지 吾人의 淺見薄識으로 能히 遍觀하여 足히 蘊奧를 盡發하리오. 又 沉數千載之下에 生하여 數千載之前의 聖人의 心法을 講明함이리오. 그러나 聖人의 心과 道, 書에 現함이 化工의 妙物에 著함과 如하도다. 吾人은 聖書經傳에 依하여, 그 眞意의 大略을 論하고자 하노니, (一) 目的과 地位, 儒敎의 目的은 무엇이뇨? 大學에 밝히여 갈아대 『大學之道는 在明明德하며 在親民하며 在止於至善이니라.』 하고 又曰 自天子以至於庶人히 壹是皆以修身爲本이라 하얏스며, 子路 | 夫子의 志를 聞하기를 願한대 子曰 『老者를 安之하며 朋友를 信之하며 少者를 懷之니라.』 하섯스니, 由此觀之컨대 儒敎의 眼目を 可知로다. (一) 萬人天得의 明德을 밝히 하며, (二) 이를 天下에 推及하여 萬衆을 作新하고, (三) 이로 하여금 至善에 正하게 하고자함에 在하니, 故로 그 根本은 오즉 個人의 修身에 在하나, 그러나 그 極한 善化에 至하여야는 老者 | 安之하며 朋友信之하며 小者 懷之하여 各人이 安仁하는도다.

이 儒道 本旨目的이라. 然則 이를 指하여 吾人은 道德이라 할가 宗教라 할가? 近代 解釋에 依하건대 道德은 人과 人의 關係를 律함이오, 宗教는 人과 人의 信仰關係를 稱함이라 하니 儒敎의 根源과 孔夫子의 信仰은 勿論 天에 在하얏거니와 그 敎의 內容은 오즉 天理의 發現 人世의 倫理關係를 定하얏스니, 故로 吾人은 儒敎를 指하여 道德이라 하고자 하노라. 宗教의 根本要系는 (一) 罪의 觀念이오, (二) 救援의 觀念이오, (三) 救主의 觀念이니, 이

는 佛敎나 基督敎를 勿論하고 共通한 點이라. 그러나 儒敎에 在하여야는 敎主 孔夫子는 오즉 師라 하며 救主라 하지 아니하고, 各人 天得의 明德을 明히 하되 이는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目的으로 하고 永生을 取得하는 救援으로 하지 아니하며, 物慾之弊는 來世의 破滅을 當하는 罪라 하지 아니하고 오즉 現世에 弊惡을 生하는 根本이라 하얏스즉, 吾人은 이를 指하여 宗敎라 하지 아니하고 道德이라 함이 穩當하다 하노라. 天과 人이 엇지 그 二며 現在와 來世가 엇지 그 各別하리오. 오즉 天理는 純亦不已하며 그에 根本한 人格은 悠悠無窮하니 道德과 宗敎가 其極에 至하여야는 一이나, 그러나 吾人이 이에 道德과 宗敎의 別을 立함은 그 立論態度와 力說如何를 隨함이로다.

儒家를 道德이라 하얏스즉 大概 道德에는 各種 區別이 有한지라. 個人道德과 社會道德과 政治道德 等이 是니, 然則 儒敎의 地位는 如何한고? 古代의 學은 東西를 勿論하고 現代와 如히 解剖 分析이 明白치 못한지라. 儒敎의 道德은 그 中에 個人, 社會, 政治의 道德을 全部 包含하얏스니, 이 吾人의 大而 博이라 稱하는 所以로다. (未完)